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책임 연구자 : 노 성 덕

정 재 우

공동 연구자 : 김 동 일

김 태 성

이 미 현



청소년상담연구 194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인 쇄 : 2016년 12월

발 행 : 2016년 12월

발 행 인 : 권 승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24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633-0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 책임연구자: 노성덕, 정재우 ; 보조연구원: 김동일, 김태성, 이미현.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94)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633-0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청소년 복지[靑少年福祉]

338.5-KDC6
362.7-DDC23

CIP2016030258

간행사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자살 등 청소년 위기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효과적인 구축과 운영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2006년 출범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구조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으로, 전국 2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YS-Net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업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YS-Net이 출범한 2006년 54개에 불과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6년 222개로 확대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CYS-Net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어, 2007년 CYS-Net 사업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 척도의 개정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6년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척도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전국의 청소년들과 연구에 적극 협조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 수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성덕, 정재우, 김태성, 이미현 등 본원의 연구진과 연구에 참여해주신 김동일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CYS-Net 사업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여, 전국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권승권 

초 록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란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2016년 현재 2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정책으로써의 CYS-Net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으며, 이를 위해 2007년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다. 한편, 기존 척도 개정에 관한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원에서는 CYS-Net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내용은 첫째,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여 CYS-Net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개정된 CYS-Net 효과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다. 셋째, 시범적으로 CYS-Net 서비스 수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CYS-Net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척도 개정을 위하여 현장전문가의 의견 수렴, 문헌연구와 CYS-Net 종합정보망 분석을 토대로 1차 문항을 구성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부터 타당성검증을 하여 2차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 총 29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문항이 선정되어 척도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척도로 CYS-Net 서비스 전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283명의 데이터가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의 CYS-Net 종합정보망 사례의 주호소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수혜청소년의 호소문제는 학업·진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호소 비율이 높았으며, 2013년도에 비해 최근 2년간 컴퓨터·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호소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둘째, 문헌연구, CYS-Net 종합정보망 분석, 요구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1차 문항은 총 59문항이었고, 문항의 타당성 정도 검증을 위하여 현장 및 학계전문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의견 일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삭제하고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문장 형식을 통일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2차 예비문항은 총 5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2차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요인의 적절성을 판별하고 문항 추출을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조 하에 내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93부의 설문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총 57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7로 나타났으며, 세부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는 분석 결과는 .84에서 .9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한 하위 측정요인과 문항간 구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요인의 최종 문항 구성을 위하여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고, 구조모형 검증 결과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영역의 하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YS-Net 효과성 평가 척도가 위기 청소년의 서비스 전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CYS-Net 효과성 척도는 개인내적심리위기 영역은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3개 요인, 부정적대인관계 영역은 또래관계, 부모관계, 교사관계의 3개 요인, 사회부적응 영역은 가정적응, 학교적응 총 2개 요인으로 총 8개의 하위 측정요인별로 3문항으로 24문항과 전반적어려움을 묻는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넷째, CYS-Net 서비스 이용 전후 청소년의 위기 수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CYS-Net 서비스 이용 후,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요인과 전반적어려움이 서비스 이용 전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YS-Net 효과성 측정 도구를 개정함으로써,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CYS-Net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우울, 불안, 충동성, 부모자녀관계, 학교에 대한 흥미에 대한 단일 구조 요인으로 측정했던 것을 보다 복합요인과 요인의 위계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인의 심리상태 호전, 대인관계 개선 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CYS-Net 서비스 효과평가도구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사업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라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과제 2

II. 이론적 배경 | 3

- 1. CYS-Net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 3
- 2. CYS-Net 사업 효과 구조 분석 9
 - 가. 공공서비스로서의 CYS-Net 효과 창출을 위한 투입 9
 - 나. 공공서비스 과정으로써 CYS-Net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지원 10
 - 다. 공공서비스 산출과 결과로서의 CYS-Net 성과 12
- 3. 유사 사업의 효과성 연구 고찰 14
- 4. CYS-Net 효과에 관한 연구 15
 - 가. 개입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15
 - 나. 사업 평가 지표 개발 연구 17

III. 연구방법 | 19

- 1. 문항개발 및 타당화 20
 - 가. 문헌연구, 시스템분석 및 요구조사 20
 - 나. 1차 문항구성 24
 - 다.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화 작업 25
 - 라. 요인분석 36
 - 마. CYS-Net 효과성 검증 37

IV. 연구결과 | 38

1. 확인적 요인분석	38
가. ‘개인내적심리위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40
나. ‘부정적대인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43
다. ‘사회부적응’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46
라. 최종문항 선정	48
2. CYS-Net 효과성 조사 결과	50
가.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개인내적심리위기에 미치는 영향	51
나.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부정적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52
다.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53
라.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전반적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53

V. 요약 및 논의 | 54

참고문헌 | 56

부록 | 61

부록 1. 사전 요구조사 설문지	62
부록 2. 1차 문항구성 및 출처	64
부록 3. 전문가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외부전문가)	66
부록 4.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청소년 예비조사)	71
부록 5.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사전-사후검사)	74

Abstract | 76

표 목 차

표 1. CYS-Net 연도별 운영기관 종사자 현황	10
표 2. CYS-Net 연도별 청소년전화1388,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 실적	11
표 3. CYS-Net 연도별 수해청소년실적	12
표 4. 연도별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현황	13
표 5. 수해청소년 만족도	13
표 6. 2013-2015년 진행사례 주호소 순위 및 비율	20
표 7.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 1	21
표 8.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 2	22
표 9.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 3	23
표 10. 1차 문항 구성	25
표 11. 문항별 평균	26
표 12.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30
표 13. 문항 및 기타 의견	32
표 14. 전문가 의견수렴 후 문항 수정 결과	33
표 15. 요인분석 연구대상 인구학적 정보	36
표 16. 문항 구성	39
표 17.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	39
표 18.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40
표 19.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41
표 20.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41
표 21.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43
표 22.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44
표 23.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44
표 24.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45
표 25. ‘부정적대인관계’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45
표 26.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47
표 27. ‘사회부적응’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47

표 28.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47
표 29. ‘사회부적응’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48
표 30. 최종선정 문항	49
표 31. 연구대상 인구학적 정보	50
표 32. 개인내적심리위기 변화	52
표 33. 부정적대인관계 변화	52
표 34. 사회부적응 변화	53
표 35. 전반적어려움 변화	53

그림 목 차

그림 1. CYS-Net 체계도	4
그림 2. CYS-Net 운영조직	5
그림 3. CYS-Net 사업주체별 역할	7
그림 4. CYS-Net 운영 지원체계	8
그림 5. 연구방법 및 절차	19
그림 6. 타당성 구분	40
그림 7.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42
그림 8.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46
그림 9.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상담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상담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다(Heppner, Wampold, Kivlighan, 2007; 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등, 2011; 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2014).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도 효과에 대한 관심은 예외가 아니다(Erk, 2008 ; 여성가족부, 2016).

특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상담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투입에 적절한 성과창출에 대한 요구가 따르기 마련이다(여성가족부, 2016). 현재 청소년상담복지 영역에는 CYS-Net을 필두로 하여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인터넷·스마트폰 예방 및 해소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가출청소년 지원 사업 등에서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과 더불어 적합한 성과가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CYS-Net 사업은 시·군·구 기초행정단위에 구축되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는 매우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CYS-Net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2005년 초기부터 효과성 검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청소년위원회, 2005).

그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7년에 위기청소년을 분류할 수 있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와 위기문제 개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CYS-Net 효과성 척도를 개발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7). 위기스크리닝척도는 청소년들이 발달과정 중에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취약한 환경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확인하여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CYS-Net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담당하는 청소년동반자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청소년의 위기정도를 스크리닝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상담자들이 활용하는 척도로 확대되었다. 한편, CYS-Net 효과성 척도는 CYS-Net에 유입되는 위기청소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2007년에 개발되었다(이창호, 김동일, 노성덕, 최수미, 김상수, 2007; 김동일, 양미진, 정여주, 김태성, 허은, 방나미, 2008).

이 척도는 전국 1,03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반응하기 적합한 문항수를 고려하여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CYS-Net 수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우울, 불안, 충동성, 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척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기관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척도는 청소년 위기문제를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등 세부적인 요인만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또한 청소년 개인이 가진 고유 위기문제 해소 여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CYS-Net 효과성 측정 도구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위기문제 개선정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요인을 구성하고 문항을 개정한다.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CYS-Net 효과성 척도를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CYS-Net 효과성 척도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행 척도에 경성지표적 요소까지 가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성지표적 요소에 충실하되, 경성지표적 요소를 추가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위기스크리닝척도 개선연구에 이를 반영하여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을 위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다.

셋째, 개정판 CYS-Net 효과성 척도를 활용하여 CYS-Net 서비스 전후 비교분석을 통해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여 CYS-Net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개정된 CYS-Net 효과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다.

셋째, 시범적으로 CYS-Net 서비스 수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YS-Net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란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정의된다(노성덕, 김태성, 채중민, 2010). 즉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2016, 여성가족부).

CYS-Net은 2005년에 처음 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었던 청소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출범(2005. 4.27)시켰고, 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과제 중 제 1목표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6b).

이후 청소년정책이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처가 변경되는 정책 환경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CYS-Net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중추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다(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CYS-Net의 기본 추진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청소년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시·도, 시·군·구 등 일정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의 위기정도를 판정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김두현, 2006).

즉, CYS-Net은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한 다음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하고도 적합한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
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 속에서 One-stop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1차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육청, 학교, 경찰청, 사
회복지관, 그룹홈, 보건소, 노동관서,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다른 공공기관
중심으로 2차 연계망,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포괄하는 광역의 3차 연계망으로
CYS-Net 추진체계를 조직화하였다.



그림 1. CIS-Net 체계도

CYS-Net 지역 내 추진 조직은 그림 1과 같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기관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지역 내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과 추진, 조직구성, 활동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민관 유관기관과 개인이 협약 등을
통해 기관/개인의 인적, 환경적 하드웨어와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전문 활동 등 소프트웨어를
상호 활용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력기관과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각 기관의 대표와
실무자를 운영협의회(현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관을 1388청소년지원

단으로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센터에서 구축해야하는 CYS-Net 운영조직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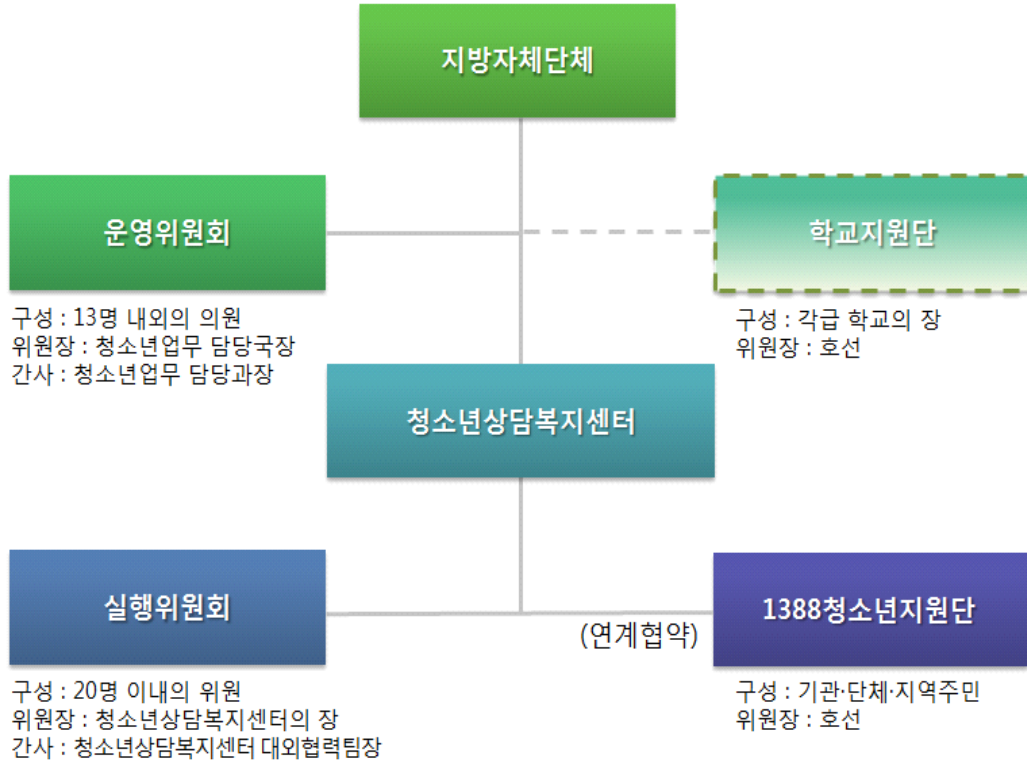


그림 2. CYS-Net 운영조직

초기에는 기존 연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 부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지역별 청소년 관련 자원과 충분한 연계부족 및 기존 연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기관을 확보하고, 상시 협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청소년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부처간의 협력,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훈령 제 545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16개 시·도 및 81개 시·군·구에 CYS-Net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CYS-Net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갔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불가결한 기관 간 의무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CYS-Net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령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총리훈령은 2009년 5월에 기본초안이 마련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2009.5~7)을 통

해 보건복지가족부(당시 주무부처) 내 협의(2009.7~8)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부처 간의 의견조회(2009.8), 규제여부심의(2009.8~9), 법제심사(2009.9.21.~ 11.9)를 거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공포·시행(2009.11.27~)하게 되었다. 핵심 사항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며, CYS-Net에 의무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공공기관(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한 것이었다(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그림1과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한 기관인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그림2와 같이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주체를 명시하여 역할을 구분하였다. 운영위원회는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99%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교육청과의 의뢰·협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에 학교지원단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연계기관 간 실무적인 연계강화 및 기관 간 사례공유 등을 위해 필수연계기관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20인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총리훈령에 제시된 필수연계기관, 운영위원회 등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전국 확대시행(2012.6)에 따라 학교(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협력 강화 및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학교폭력 대응 강화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CYS-Net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1차 연계망)이 되는 공공기관(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경찰서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외 협력강화 기관으로 지역 사회내 관련 센터 및 기관(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등)들과 연계 협조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CYS-Net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과 위기청소년지원체계는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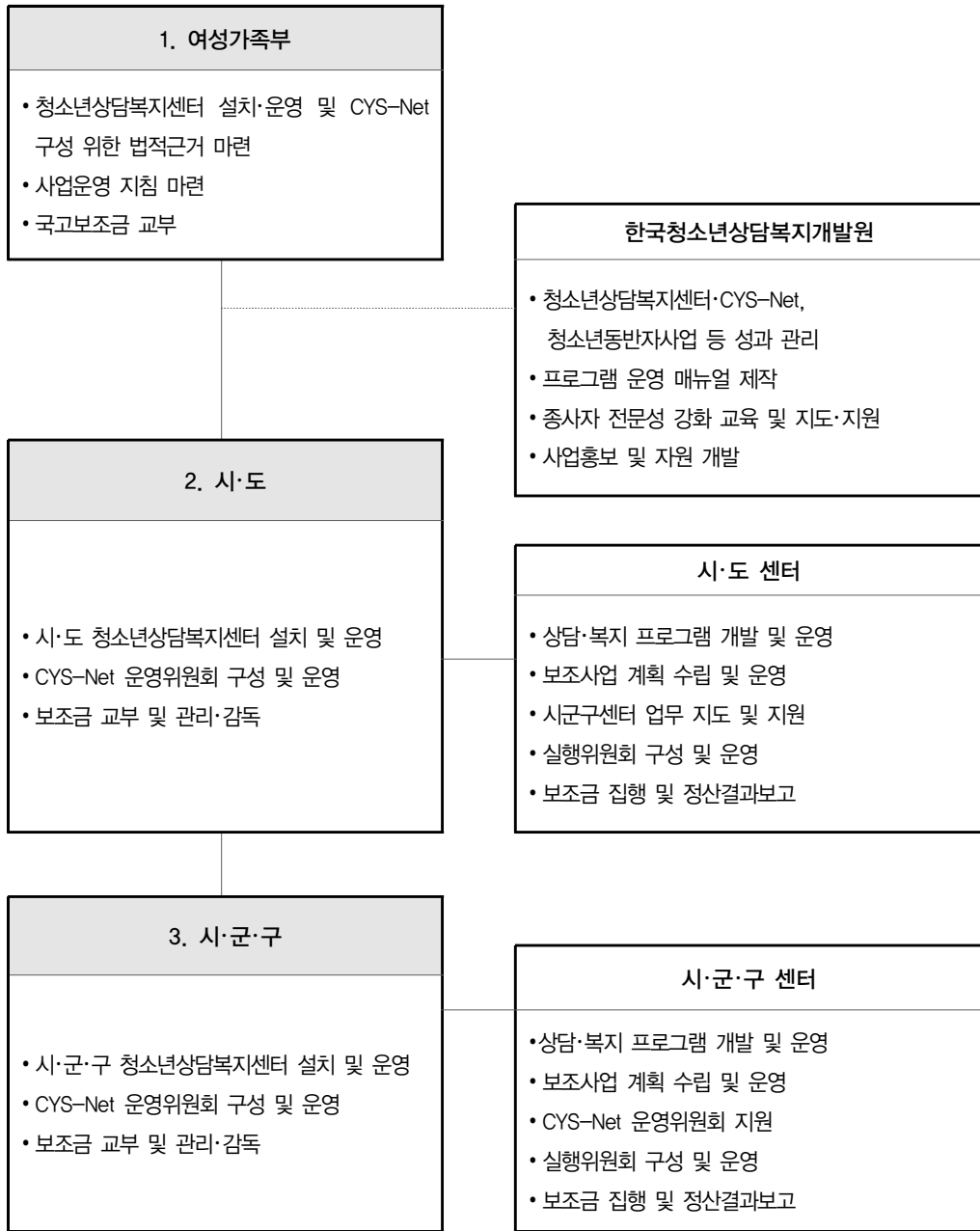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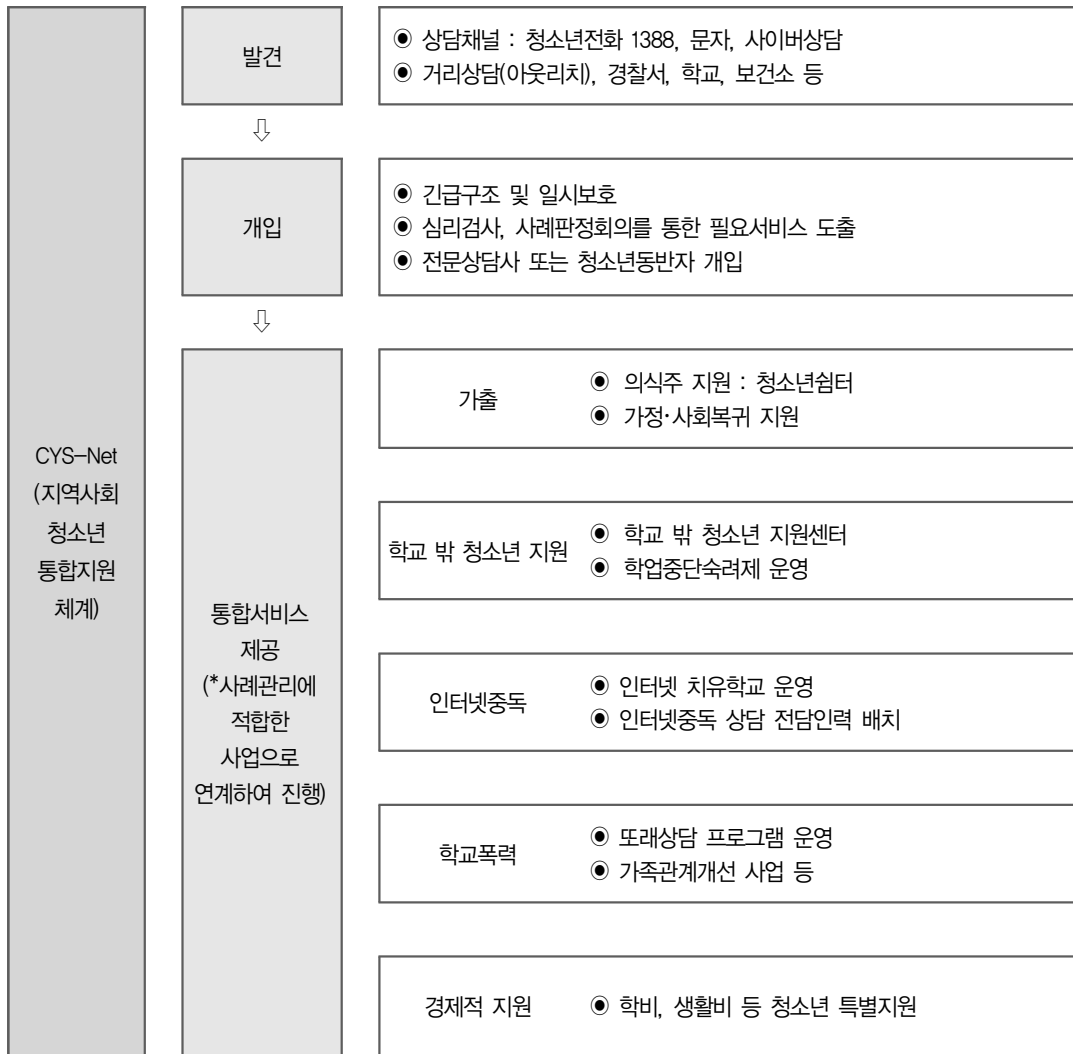


그림 3. CYS-Net 사업주체별 역할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연계 및 지역자원】

① (필수연계기관)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시설 등
 ②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원활히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조직
 ③ (학교지원단) 학교에서의 지원 센터 상담 의뢰 활성화

그림 4. CYS-Net 운영 지원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2. CYS-Net 사업 효과 구조 분석

가. 공공서비스로서의 CYS-Net 효과 창출을 위한 투입

공공서비스는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순으로 일련의 서비스제공 및 효과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ich, 1982). 이러한 단계에서 살펴볼 때, CYS-Net 운영 기반 구축 및 인프라의 확장은 공공서비스의 투입(input)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YS-Net의 대상은 위기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 위기문제에 노출될 청소년으로 명확히 하였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서비스 개입 효과를 주기위해 지자체 중심의 정부 예산 및 인프라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2006년 시범사업에 불과하였던 CYS-Net은 2016년 현재 지역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었고 전국 222개, 약 2,300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사회안전망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CYS-Net 운영 기반 구축 및 인프라의 확장은 정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의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공공서비스란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지는 재화(goods)와 서비스를 일컫는다(김일태, 1992). 정부는 일반 국민 중 청소년을 수혜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다. 는데 1993년에는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초창기 청소년정책은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가출, 폭력 등 다양한 위기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적극적 대처 노력이 주문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이후 타법 개정 및 청소년사업 확대에 따라 일부 개정되다가 2005년 2월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상담센터(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시도의 시군구 지도·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CYS-Net(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명문화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촘촘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사업에 대한 법적 추진근거가 보다 명확해 졌다.

CYS-Net(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은 2005년 정책연구로 시작되어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에는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사회안전망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였다. CYS-Net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CYS-Net 예산 역시 초창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0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54개소에 불과 하였으나 2015년 200개소로 약 270.4% 확대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CYS-Net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먼저,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 구축 노력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특히 2015년까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설치유무가 평가지표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가 가속화 되었다. 2016년부터는 CYS-Net 설치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설정되었고 최근까지 200개 CYS-Net 운영기관 지정 이후 정체되었던 CYS-Net 확산이 2016년에는 신규로 22개 시군구센터가 CYS-Net 사업에 지정되어 총 222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CYS-Net 운영기관 종사자도 2015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246명, 청소년동반자 1,044명으로 총 2,290명에 달하게 되었다.

표 1. CYS-Net 연도별 운영기관 종사자 현황

연도	센터 종사자 수(명)			청소년동반자 수(명)
	센터기본 인력	사업비 인력	총계	
2013	987	291	1,278	985
2014	1,061	284	1,345	1,000
2015	1,052	194	1,246	1,044

나. 공공서비스 과정으로써 CYS-Net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지원

CYS-Net이 공공서비스로써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단계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련의 국면 중 과정(throughput) 단계로 볼 수 있다.

CYS-Net은 청소년전화1388이 중요한 위기청소년 발굴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위기문제를 내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을 위해 용기를 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내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청소년전화 1388은 위기청소년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이때 발굴된 위기청소년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내방하도록 유도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위기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청소년전화1388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117 학교폭력 전화 등 청소년대상 타 전화서비스 및 사이버상담 등의 여파로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 2007년

24만명에서 2014년까지 약 40만으로 지속적 확대되어 왔다. 이는 CYS-Net 운영기관 확대에 따른 청소년전화1388 인프라 확대 사유도 있지만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지속적 홍보 노력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청소년전화1388 홍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유관기관에 동영상 배포, 일선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1388포스터 및 팸플릿 배포, 언론홍보 등 다양한 홍보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가출 등 긴급한 경우 16개 시도의 경우 긴급구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데, 긴급구조의 경우 2015년 전국적으로 약 4천건, 일시보호서비스는 약 5천건 정도 제공되었다.

표 2. CYS-Net 연도별 청소년전화1388,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 실적

연도	1388전화상담(건)		
	주간	야간	소계
2013	326,371	86,860	413,231
2014	312,735	87,756	400,311
2015	288,574	87,463	376,037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하는 것을 법제화 하고 있다. CYS-Net 체계상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 교육청, 학교, 경찰청(서), 청소년복지시설, 지방고용노동청, 보건소, 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필수연계기관을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CYS-Net 운영기관은 1388청소년지원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내 택시회사, PC방, 약국 등 민간조직 및 멘토링 등 재능기부를 원하는 개인을 활용, 청소년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에 2006년 6,424명에서 2015년 38,606명으로 약 501%의 비약적인 지역사회 내 민간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이 이루어 졌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초창기에는 상담중심 서비스에서 법률, 의료, 경제적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사업구성에 있어서도 상담, 교육 중심 사업에서 미디어중독예방·치료 및 두드림·해밀 등 학업중단청소년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추어 다변화 하였다. 2015년 현재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미디어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34,221명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였고, 372명에게는 기숙형 캠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70.3% 이상의 인터넷중독 개선율을 보였으며,

4,463명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관련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까지 전국 5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두드림·해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4,953명의 학업중단청소년에게 학업복귀, 취업 등 사회진입을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2014년 2,333명의 학업복귀, 1,926명의 사회진입성공을 CYS-Net을 통해 이루어 냈다. 이를 발판으로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사업이 고도화 되고 있다.

이처럼 CYS-Net 사업 초창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YS-Net은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초창기 성과라 할 수 있는 투입(input)과 과정(throughput)단계를 지나 구체적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를 증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평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공서비스 산출과 결과로서의 CYS-Net 성과

CYS-Net은 전국적 기반조성, 인프라 확대 및 위기청소년 발굴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혜인원수 등 양적 및 수혜서비스 만족도 등의 질적 서비스 성과가 확대·창출되었다. 공공서비스로써 CYS-Net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보았는가와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위기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일 것이다. 양적 실적 측면의 수혜청소년 수와 질적 성과 측면인 만족도 등은 서비스 제공 일련의 국면 중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CYS-Net 운영을 통한 수혜청소년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5만 8천명에 불과하였던 수혜인원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 약 2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서비스 대상 성별분포는 상호 약 50%로 거의 균등하게 수혜가 이루어 졌음도 살펴볼 수 있다. 수혜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실적은 2015년 연간 약 400만건 이상 달하고 있다.

표 3. CYS-Net 연도별 수혜청소년실적

연도	남자	여자	합계
2013	94,901	88,427	183,328
2014	122,681	119,549	242,230
2015	113,482	111,310	224,792

수해청소년들에게 지원된 상담지원서비스에 있어서,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인터넷 순으로 높은 호소문제를 보이고 있다.

표 4. 연도별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현황

[단위 : 건]

	가정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태도	활동	컴퓨터/ 인터넷	단순 정보 제공	계
2012	283,934	514,258	973,773	80,169	745,781	275,955	354,045	26,708	58,703	277,977	249,133	3,840,436
2013	294,675	474,855	1,047,704	99,081	779,740	273,305	385,107	30,335	51,243	280,788	272,159	3,988,992
2014	287,465	427,998	1,145,148	79,638	789,687	304,951	427,677	31,649	57,256	323,806	260,562	4,135,837

이러한 양적 성과와 아울러 질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CYS-Net 서비스를 이용한 수해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3년 85.4점에서 2015년 85.8점으로 꾸준히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 역시 2013년 88.5점에서 2015년 90.38점으로 꾸준히 향상 및 관리되고 있었고 이 또한 서비스 대상자의 직접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질적으로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수해청소년 만족도

연도	CYS-Net 수해청소년 만족도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만족도
2013	85.42	87.9
2014	85.57	88.2
2015	85.81	89.9

CYS-Net을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일련의 4가지 국면으로 살펴 본 결과, 각각의 국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 왔다. 향후 정부 정책 추진의 지속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YS-Net 성과와 효과에 대한 측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계별 성과는 CYS-Net이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최종 성과로써는 위기문제를 내포하여 CYS-Net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해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위기 정도가 감소하였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CYS-Net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측정지표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유사 사업의 효과성 연구 고찰

CYS-Net 사업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 CYS-Net 사업의 대상은 문제가 발현된 위기청소년이지만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과 가족이라는데 차이가 있으며, 드림스타트는 문제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서비스 영역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 인지, 정서(안녕감), 사회성 발달상태 및 양육자와 가족의 기능상태를 조사하여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사업효과성 측정은 서비스 수혜자중 표본을 추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효과성 측정은 공통적으로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대한 사정도구를 활용하고, 영아와 유아는 한국형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체계(K-ASQ)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기술평정체계(SSRS), 주관적 안녕감척도, 학교생활적응척도, 부모애착척도(IPPA-R)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검사(PSI)와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하여 심리적안녕감척도(PWBS),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척도(FACES III)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 평가의 경우, 사업의 참여와 비참여집단을 구분하여 영아, 유아,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의 아동의 효과를 비교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비교하였고, 서비스 기간에 따른 발달차이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4). 한편, 이러한 드림스타트의 효과성 평가는 기존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에 따라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한편, 설문 문항이 방대하고 설문대상자가 추출되어 진행되는 바, 서비스 수혜자 전체 대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4. CYS-Net 효과에 관한 연구

가. 개입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개입 전략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005년 CYS-Net이 구축된 이후, CYS-Net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먼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이 구축된 직후, CYS-Net 이용자와 제공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황순길 김동일, 주영아, 이호준, 신현수, 최수미, 손재환, 김상수, 김소연, 2006). 황순길 외(2006)의 연구에서는 CYS-Ne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담자와 연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CYS-Net 운영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비스 수혜자(청소년, 학부모), 서비스 제공자(상담자, 연계기관 종사자)의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CYS-Net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 운영 평가를 위한 기저선을 제공하였고, CYS-Net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된 평가로써 CYS-Net 운영 과정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황순길 외, 2006).

한편,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정신보건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임상적 효과와 만족도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Stallard, 1996; 김동일, 최수미, 2008 재인용)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YS-Net 만족도만으로 상담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서비스 효과의 직접적 평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창호 외, 2007; 김동일, 최수미, 2008). 이창호 외(2007)가 실시한 연구는 CYS-Net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내담자의 서비스 이용 전후의 위기수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기요인을 심리내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CYS-Net 서비스를 통해 변화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의 심리내적인 측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와 같은 가정 및 학교 환경요인의 총 5요인 17문항의 CYS-Net 서비스 효과 평가 척도가 구성되었고, 총 93명의 청소년에 의해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CYS-Net 서비스의 효과 평가도구를 처음으로 개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CYS-Net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CYS-Net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이창호 외, 2007). 이듬해 2008년도에는 CYS-Net 서비스 효과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8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

원센터)에서 1,0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김동일 외, 2008). 그 결과 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 모든 하위요인에서 서비스 이용 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효과 척도가 위기청소년의 서비스 전후 변화 측정을 하는데 있어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연구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 정책으로서의 CYS-Net 사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CYS-Net 사업이 구축되고 확대되는 기초자료로 활용 되었다.

허은(2010)은 CYS-Net 서비스 효과성 관련하여 개인과 기관변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책무중심의 상담서비스의 평가모델에 관하여 제시하며, 내담자 개인 변인과 기관변인에 따라 CYS-Net 서비스의 효과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YS-Net 서비스 이용 전후로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청소년 위험수준 감소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오래 이용하고 위험수준 정도가 낮을수록 CYS-Net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CYS-Net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들로써, CYS-Net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 전후로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의 CYS-Net서비스 효과성 척도는 사업 초기인 2007년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 주호소의 변화를 반영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허은(2010)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선행연구가 대부분이 사회복지학, 교육학 분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상담서비스라는 고유한 개념과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CYS-Net 청소년상담서비스가 가지는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성과측정 경향에 따라 개발된 CYS-Net 서비스 효과성 평가 척도는 현재 위기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험요인 중 변화 가능한 요인을 지표화하여 척도 구성을 하고 있다며, 상담서비스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업중단을 감소, 학업성취도 등 실질적인 성과로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YS-Net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왔으며, 사업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CYS-Net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CYS-Net 사업주체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해왔다. 이처럼 CYS-Net 운영

주체의 평가과정은 고도화되고 체계화되었음에 불구하고, 수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평가를 위한 도구는 사업 시작 이후 별다른 변화나 개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척도를 사용하면서 있었던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CYS-Net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사업 평가 지표 개발 연구

한편, 사업 이후 CYS-Net 사업의 허브기관으로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평가도 지속되었다. 김동일(2006)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평가지표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광범위한 CYS-Net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어려움으로 사업 초기(2007-2008) CYS-Net 평가는 전체 위기청소년 지원 수를 지표로 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단순 산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각 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질적 관리 측면에 대한 평가 배제 등의 제한점이 있었던 바, 2009년도에는 진행사례수, 전화상담수, 지원서비스 건수, 홍보실적, 아웃리치, 수혜청소년 만족도 등 지표를 다변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평가지표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향하는 사업이 달라지고 CYS-Net 사업의 방향이 영향을 받는 사항을 깊이 고려하기 어려웠던 점, 비계량 지표가 제외됨에 따라 지자체 역할까지 점검하지 못한 점의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김동일, 김은양, 이주영, 김태성(2010)은 CYS-Net 사업의 운영성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CYS-Net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박수정, 김인규, 김태성, 이준우(2013)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양적·질적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공공의 책임성, 센터의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4년 센터 평가는 2012년 1월 이전에 개소한 176개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크게 위기청소년지원 기반조성, 센터의 사업인프라, 센터의 운영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센터의 운영성과에서는 위기청소년 개입성과로써 CYS-Net 효과성 척도를 활용한 서비스 수혜자의 심리상태 변화정도를 측정하고 있어 센터를 평가하는데 위기청소년의 변화정도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7년도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를 위하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지표 개선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은경,

손재환, 2016)

이렇듯,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CYS-Net 사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이 발전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도 CYS-Net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지역에서 CYS-Net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희창(2008)은 영국, 독일, 미국의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며 CYS-Net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으로 표적대상 집중성 강화, 서비스 지원체계 안정화, 전달체계 확립, 전문성 재고, 통합운영 확립, 재정의 균등조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에서는 CYS-Net 사업을 진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춘화(2008)는 경기도 안산 지역의 CYS-Net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연계와 협력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안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는 청소년의 주호소는 1위가 대인관계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학업·학교부적응을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따른 CYS-Net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서비스가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미(2010)는 경상남도 지역의 상담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전의 연구와 일관되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접근성, 행동변화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 서비스유형, 이용빈도 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경남지역의 CYS-Net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YS-Net 효과성 척도를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CYS-Net 내방 청소년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CYS-Net 사업 및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위기문제와 관련된 문항을 분석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개발된 효과성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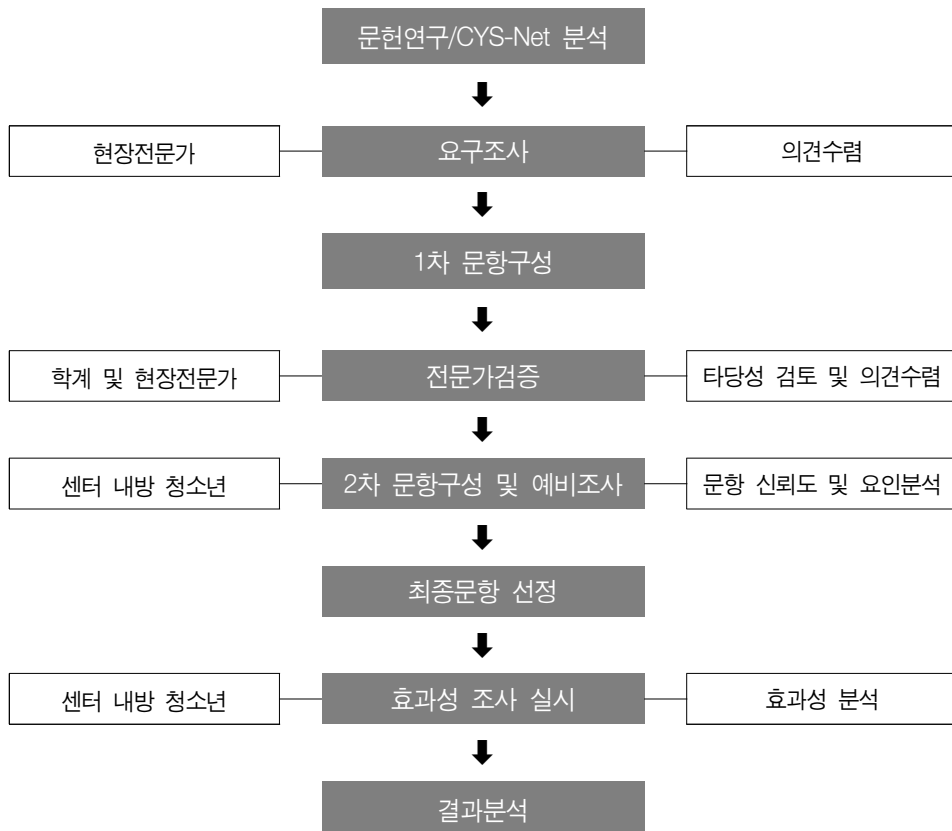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항개발 및 타당화

가. 문헌연구, 시스템분석 및 요구조사

국내·외 연구보고서, 자료집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CYS-Net 사업의 양적·질적 성과, CYS-Net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기존의 CYS-Net 효과성 척도를 토대로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문항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1) CYS-Net 시스템 추세분석

CYS-Net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주호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CYS-Net 종합정보망에서 사례의 주호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주호소는 학업/진로(25.36%)이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18.7%), 컴퓨터/인터넷사용(16.20%), 정신건강(9.93%), 성격(9.29%), 일탈 및 비행(8.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의 경우에도 2015년도와 비교하여 컴퓨터/인터넷 사용(18.52%)이 대인관계(15.96%)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호소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한편, 2013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탈 및 비행(12.24%)이 높게 나타난 한편, 컴퓨터/인터넷사용(7.23%) 관련 주호소는 2014, 2015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사용 문제가 최근 들어 문제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 6. 2013-2015년 진행사례 주호소 순위 및 비율

순위	2015년		2014년		2013년	
	주호소	비율(%)	주호소	비율(%)	주호소	비율(%)
1	학업/진로	25.36	학업/진로	28.24	학업/진로	31.66
2	대인관계	18.70	컴퓨터/인터넷 사용	18.52	대인관계	17.93
3	컴퓨터/인터넷사용	16.20	대인관계	15.96	일탈 및 비행	12.24
4	정신건강	9.93	정신건강	9.22	성격	9.24
5	성격	9.29	성격	8.61	정신건강	8.59
6	일탈 및 비행	8.93	일탈 및 비행	7.88	가족	8.25
7	가족	6.67	가족	6.27	컴퓨터/인터넷사용	7.23
8	활동	1.40	성	2.65	활동	0.84
9	성	1.35	정보제공	1.25	성	1.23

순위	2015년		2014년		2013년	
	주호소	비율(%)	주호소	비율(%)	주호소	비율(%)
10	정보제공	1.09	활동	0.65	정보제공	1.81
11	생활습관/외모	0.75	생활습관/외모	0.62	생활습관/외모	0.77
12	잘못걸린전화	0.24	잘못걸린전화	0.14	잘못걸린전화	0.18
13	법률정보	0.09	법률정보	0.02	법률정보	0.03
	합계	100	합 계	100	합계	100

※ 출처: CYS-Net 종합정보망

표 7.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 1

학업/진로				대인관계				컴퓨터/인터넷사용			
세부 호소문제	비율(%)			세부 호소문제	비율(%)			세부 호소문제	비율(%)		
	'15	'14	'13		'15	'14	'13		'15	'14	'13
진로정보 탐색	43.1	43.1	41.9	친구관계	82.0	79.6	74.7	인터넷 게임 과다	62.7	68.1	79.5
학업흥미/ 학업동기 부족	19.7	18.4	17.6	따돌림 및 왕따	7.6	9.3	14.0	스마트폰 과다	29.8	20.1	-
학교생활 부적응	10.1	10.0	9.6	기타	6.0	6.3	6.4	기타	4.4	8.8	16.9
진로인식 부족	6.7	8.7	10.7	이성교제	1.8	1.9	1.8	인터넷 채팅 과다	2.7	2.8	2.9
학습능력 부족	6.1	5.2	4.7	교사와의 관계	1.7	2.0	2.1	인터넷 음란물 과다	0.1	0.1	0.3
기타	5.4	6.3	6.7	부모와 어른과의 관계	0.9	0.9	1.0	인터넷 쇼핑 과다	0.1	0.1	0.3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4.1	3.5	2.7	합 계	100	100	100	사이버 범죄	0.1	0.1	0.1
진로변경 및 전환	2.4	2.3	3.0					합 계	100	100	100
등교거부	2.2	2.4	3.0								
해외/귀국 청소년 부적응	0.3	0.2	0.2								
합 계	100	100	100								

※출처: CYS-Net 종합정보망

앞에서 살펴본 주호소 문제의 세부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 2015년도의 경우 학업/진로의 호소문제에 있어 진로정보탐색(43.1%)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흥미/동기 부족(19.7%), 학교생활부적응(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친구관계(82%)에 관한 호소가 대부분이었으며, 컴퓨터/인터넷사용의 경우 인터넷게임과다(62.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과다와 관련된 주호소는 29.8%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과다에 관한 호소문제는 2014년 새롭게 추가되면서 앞에서 살펴본 전체 컴퓨터/인터넷사용 관련 주호소문제 비중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 8.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 2

정신건강			
세부 호소문제	비율(%)		
	'15	'14	'13
우울/위축	25.5	28.3	37.0
자살문제	22.1	17.6	10.9
기타	19.1	22.7	10.8
강박/불안	11.6	11.6	13.5
충동(분노)조절 문제	8.1	7.0	9.5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5.5	5.1	7.9
반항성 및 품행성 문제	1.9	1.8	2.7
발달문제	1.7	2.2	2.3
정신분열 및정신증적 문제	1.3	1.1	1.5
자해	1.2	1.0	1.9
신체화문제	1.1	1.0	1.2
섭식문제	0.4	0.4	0.5
수면문제	0.3	0.4	0.5
합 계	100	100	100

성격			
세부 호소문제	비율(%)		
	'15	'14	'13
기타	50.9	47.5	40.1
소극적/과민한 성격	21.6	23.9	28.4
충동적/공격적 성격	16.7	16.9	19.6
자기중심적/독단적 성격	4.3	4.3	5.0
의존적/우유부단한 성격	3.6	4.4	4.3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2.1	2.3	2.0
편집적 성격	0.8	0.9	0.6
합 계	100	100	100

일탈 및 비행			
세부 호소문제	비율(%)		
	'15	'14	'13
학교폭력	44.5	36.1	34.9
금품갈취/절도/도박	18.2	17.4	17.5
가출	10.7	18.6	19.4
기타	8.9	8.8	8.4
음주/흡연/약물오남용	5.2	6.1	6.5
비행친구와 어울림	5.1	5.5	7.0
학교외 폭력	4.9	3.7	3.3
늦은귀가/잦은외박	2.6	3.9	3.0
합 계	100	100	100

※출처: CYS-Net 종합정보망

정신건강 주호소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는 3년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도(37%)에 비해 2014년도(28.3%)와 2015년도(25.5%)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문제의 경우 2013년도에는 10.9%였으나, 2015년도에는 22.1%로 크게 증가하여 위기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강박/불안, 충동조절문제,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등의 순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의 경우, 달리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문제의 특성상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과민한 성격, 충동적/공격적 성격의 순으로 호소문제가 나타났다. 일탈 및 비행의 경우, 학교폭력의 비율이 2013년도에 비해 점차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44.5%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글썽갈취/절도/도박, 가출, 기타, 음주/흡연/약물오남용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2013-2015년 주호소별 세부사항3

가족				성				생활습관/외모			
세부 호소문제	비율(%)			세부 호소문제	비율(%)			세부 호소문제	비율(%)		
	'15	'14	'13		'15	'14	'13		'15	'14	'13
부모자녀간의 갈등	64.3	64.9	67.8	성지식/정보 부족	46.3	75.8	37.8	나태한 생활	39.0	41.2	36.3
부모외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12.4	11.8	10.7	성폭력	16.6	5.7	20.4	기타	32.0	33.0	37.5
기타	11.6	12.6	10.6	성상담센터전용	7.8	2.6	6.9	외모 불만족	22.5	19.7	20.9
부모간의 갈등/폭력	7.2	6.8	6.6	성욕구/성충동(자위행위)	7.5	3.3	6.5	소비생활 문제	6.5	6.2	5.3
부모의 자녀 학대/방치	4.2	3.8	4.1	기타	5.1	5.6	4.6	합 계	100	100	100
자녀의 패륜행위	0.3	0.2	0.2	임신/피임	2.8	1.2	6.1				
합 계	100	100	100	음란물	2.9	1.4	3.7				
				이상 성행동	2.6	1.1	2.2				
				성매매(성매수)	2.6	0.7	4.2				
				성정체감	2.5	1.0	3.5				
				자녀의 성교육	1.8	0.8	1.8				
				근친	0.9	0.6	1.2				
				낙태	0.3	0.2	0.5				
				성병	0.3	0.1	0.7				
				합 계	100	100	100				

※출처: CYS-Net 종합정보망

가족 주호소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60% 이상으로 3년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모의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기타, 부모간의 갈등/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의 경우, 성지식/정보부족과 관련된 주호소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 성욕구/성충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외모의 경우, 나태한 생활에 관한 호소문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외 기타, 외모불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CYS-Net시스템 상에서의 호소문제를 분석한 점은 센터 내방 청소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방하였는지, 도움 받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CYS-Net 시스템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최근 3년간의 전국의 CYS-Net 수혜청소년의 호소문제는 학업/진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의 비중과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호소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2013년도에 비해 최근 2년간 컴퓨터/인터넷사용 관련한 주호소 문제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CYS-Net 시스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척도 문항 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척도 개정 요구조사

본 연구에서는 CYS-Net 효과성 평가척도를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실제로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전문가들로부터 척도 개정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1참고). 총 10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CYS-Net 효과성 척도 문항, 추가 요인 구성, 적절한 문항 수 등 CYS-Net 효과성 척도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나. 1차 문항구성

CYS-Net 효과성 척도 문항 구성은 4인의 공동연구진(교육학 박사 1인, 심리학 박사 2인, 교육학 박사 수료 1인, 심리학 석사 1인)이 함께 문헌연구 및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측정 영역을 선정하고, 적합한 문항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및 CYS-Net 종합정보망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또래관계 요인을 추가하였고, 기존 척도의 5요인이었던 것을 청소년의 위기수준 변화를 보다 설명력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상·하위 위계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0. 1차 문항 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내적심리	우울	10문항
	불안	9문항
	충동성 및 공격성	10문항
부정적대인관계	또래관계	8문항
	부모(보호자)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사회부적응	가정적응	5문항
	학교 적응	6문항
위기문제	주관적 어려움	1문항
총 문항수		총 59문항

위계적 요인은 개인의 심리상태 변화, 대인관계 변화, 사회적응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그 하위요인으로 부적내적심리(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부정적대인관계(또래, 가족, 교사), 사회부적응(가정, 학교)로 구성하였다. 요인별로 문항 구성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CYS-Net 척도 문항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수정·제거하였다. 요구조사 및 문헌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문항은 부적 내적 심리 총 29문항(우울 10문항, 불안 9문항, 충동성 및 공격성 10문항), 부정적대인관계 총 18문항(또래관계 8문항, 부모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사회부적응 총 11문항(가정적응 5문항, 학교적응 6문항), 포괄적으로 위기문제 개선정도를 보기 위한 위기문제 1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참고).

다.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화 작업

1) 연구대상

공동연구진이 1차적으로 구성한 예비문항(59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위한 문항구성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3참고).

문항 타당도 검증은 청소년상담사 1급 및 청소년상담 분야 박사 재학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하였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의 청소년상담사 1급 또는 청소년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내부전문가 14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에서 근무 중인 박사 재학 이상의 현장전문가 15명 총 29명이 참여하였다. 검증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설문 내용을 배포하여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측정 대상은 남성 8명(27.6%), 여성 21명(72.4%)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5명(17.2%), 40대 19명(65.5%), 50대 5명(17.2%)였다. 최종학력은 박사 재학 및 수료 11명 (37.9%), 박사 18명(62.1%)이었다. 전문가들의 전공분야는 상담전공이 16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학 6명(20.7%), 교육학 4명(13.8%), 청소년학 2명(6.9%), 심리학 1명(3.4%)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자격증(복수응답)으로는 청소년상담사가 17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14명(24.15), 청소년지도사 8명(13.8%), 상담심리사 6명(10.3%), 전문상담사 6명(10.3%), 임상심리사 2명(3.5%)이었으며, 현장전문가들의 상담경력은 총 11.2년이었다.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타당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이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타당한지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타당하다(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타당도 평정 외에 요인분류 및 문항에 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정 결과, 내부 및 외부 현장전문가들은 전체 59문항에 대하여 4.28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내부전문가 14명은 4.33점, 외부현장전문가 15명은 4.23점으로 내부전문가의 의견일치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문항별 평균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평균1)	평균2)	평균	표준편차
				(내부)	(외부)	(전체)	(전체)
				4.33	4.23	4.28	
부적내 적심리	우울	1	늘 마음이 슬퍼진다.	4.31	4.07	4.18	0.67
		2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4.31	4.27	4.29	0.76
		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4.69	4.20	4.43	0.74
		4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한다고 느낀다.	4.69	4.53	4.61	0.63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평균1)	평균2)	평균	표준편차
				(내부)	(외부)	(전체)	(전체)
				4.33	4.23	4.28	
		5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4.23	4.36	4.30	0.78
		6	모든 것이 귀찮다.	4.54	4.60	4.57	0.63
		7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4.00	4.07	4.04	0.96
		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4.69	4.33	4.50	0.64
		9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4.46	4.40	4.43	0.74
		10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4.54	4.53	4.54	0.64
	불안	1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4.15	4.13	4.14	1.11
		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4.62	4.20	4.39	0.63
		3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4.62	4.07	4.32	0.86
		4	이유 없이 불안하다.	4.85*	4.27*	4.54*	0.69
		5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4.38	4.27	4.32	0.72
		6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4.46	4.27	4.36	0.62
		7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4.15	3.93	4.04	1.00
		8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4.69	4.13	4.39	0.79
		9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15	4.27	4.21	0.79
	충동성 및 공격성	1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4.54	4.40	4.46	0.64
		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4.08	4.27	4.18	0.82
		3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4.54	4.13	4.32	0.82
		4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3.85	4.07	3.96	1.04
		5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4.62	4.33	4.46	0.64
		6	말다툼을 많이 한다.	4.31	4.13	4.21	0.79
		7	나는 화를 잘 낸다.	4.54	4.33	4.43	0.63
		8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4.69	4.60	4.64	0.49
		9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4.46	4.33	4.39	0.63
		10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4.46	3.87	4.14	0.93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평균1)	평균2)	평균	표준편차	
				(내부)	(외부)	(전체)	(전체)	
				4.33	4.23	4.28		
부정적 대인 관계	또래 관계	1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4.38	4.33	4.36	0.68	
		2	나는 친구가 없는 편이다.	4.69*	4.27*	4.46*	0.58	
		3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4.46	4.40	4.43	0.63	
		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4.08	3.87	3.96	0.74	
		5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4.46	4.40	4.43	0.57	
		6	나의 친구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3.77	4.20	4.00	0.94	
		7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4.00	4.20	4.11	0.92	
		8	나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3.92	4.40	4.18	0.90	
	부모 관계	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4.62	4.13	4.36	0.73	
		2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4.54	4.47	4.50	0.69	
		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4.38	4.33	4.36	0.68	
		4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4.23	4.07	4.14	0.93	
		5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4.46	4.40	4.43	0.69	
	교사/보 호자 관계	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4.15	4.47	4.32	0.72	
		2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4.54	4.20	4.36	0.62	
		3	나는 학교선생님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3.31	3.47	3.39	1.03	
		4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4.08	4.07	4.07	0.96	
		5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3.69	4.27	4.00	0.94	
	사회 부적응	가정 적응	1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4.62	4.13	4.36	0.68
			2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4.62*	4.13*	4.36*	0.62
3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4.15	4.20	4.18	0.72	
4			이따금 집을 몹시 떠나고 싶다.	4.08	4.14	4.11	1.01	
5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4.15	4.20	4.18	0.72	

요인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평균1)	평균2)	평균	표준편차
				(내부)	(외부)	(전체)	(전체)
				4.33	4.23	4.28	
	학교 또는 시설 적응	1	나는 학교가 싫다.	4.54	4.53	4.54	0.74
		2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4.15	4.13	4.14	0.93
		3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4.38	4.27	4.32	0.77
		4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4.31	4.40	4.36	0.78
		5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4.15	4.33	4.25	0.84
		6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멍뚱이를 친다.	3.92	3.57	3.74	1.06
위기문제	1	<p>지금 내가 처한 위기 정도는?</p> <p>매우 낮다 매우 높다</p> <p>1 2 3 4 5 6 7 8 9 10</p>	4.3	4.27	4.28	0.74	

세부적으로 문항과 요인분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문항의 형식 통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항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측정 수준이 높아 다른 문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12.13과 같다.

표 12.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에 대한 의견
우울	1	▶늘 → 자주 ▶슬퍼진다 → 슬프다 OR 슬픈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
	2	▶때때로 → 자주 (때때로 울고 싶어지는 것은 보통 청소년들도 거의 경험하므로)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 자주 울고 싶어진다
	3	▶‘사랑하지 않는다’보다는 ‘이해해주는 사람’ 등으로 수정
	4	▶못한다고 → 못하다고 ▶구어체로 문구가 모호
	7	▶나는 요즘 → 요즘 나는 ▶신체, 심리적원인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10	▶할 때도 있다 → 종종 하게 된다
불안	1	▶무서운 → 이유 없이 무서운 or 작은 일에도 무서운 or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무서운 (실체가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에 대한 구분, 기질적 차이 구분 고려)
	3	▶신경이 날카롭고 → 짜증나고
	5	▶많다 → 있다
	9	▶가끔씩 → 이유 없이 ▶신체적 원인도 고려됨
총동성 및 공격성	1	▶조절하지 : 표현이 모호함
	2	▶답답해서 한자리에 → 나는 한자리에 (답답해서 한자리에 오래 못 있다고 해서 총동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침)
	4	▶직접적인 질문으로 보기 어려움. 여러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음 (예: 자신감부족) ▶경향 : 초등학교 이해 여부 확인 요함
	5	▶행동한다 → 행동하는 편이다 ▶청소년기에 보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느낌도 있어 구체적일 필요
	6	▶많이 → 자주
	7	▶잘 → 자주
	8	▶참지를 → 참지
	10	▶치고받으며 : 초등학교 이해 여부 확인 요함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에 대한 의견
또래관계	1	▶ 쉽게 친구를 → 친구를 쉽게 ▶ 관계보다는 성격의 소심함
	2	▶ 나는 친구가 → 나는 친한 친구가 ▶ 선택할 수 있음, 친구가 없다거나 쉽게 사귀지 못한다고 부정적대인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
	6	▶ 과거 친한 친구의 배신이나 절교 경험이 상처가 된 경우 현재 친구가 많더라도 비중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음
	8	▶ 애들이 있다 → 애들이 많다
부모관계	1	▶ 있기가 → 있는 것이
	3	▶ 앓으신다 → 앓는다
	4	▶ 부모님과 나는 → 나는 부모님과 ▶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
	5	▶ 부모님과 나는 → 나는 부모님과
교사 관계	1	▶ 어려운 것 같다 → 어렵다. (3명)
	3	▶ 선생님들이 → 선생님들은 ▶ 바보라는 단어 부적절 ▶ 바보라는 표현이 의미가 모호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식의 정확한 표현이 좋겠음
	4	▶ ‘선생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것을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로 수정 가능
	5	▶ 선생님들은 사소한 일로 나를 잘 나무라신다. ▶ 선생님들이 → 선생님들은 ▶ 트집을 잡는다: 초등학생 이해 여부 확인
	2	▶ ‘우리가족에게는’으로 시작하여 다른 문항들과 차이가 있어 보임. ‘나는~’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선별 필요해 보임 ▶ 가족에게는 → 가족간에 ▶ 친밀감이 없다 → 친하지 않다
가정적응	3	▶ 한순간도 → 삭제 (3명)
	4	▶ 이따금 → 종종, 가끔 ▶ 여행에 대한 동경 등 가정적응과 다른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 ▶ “나는 종종 집을 떠나고 싶다. 나는 집을 몹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로 수정가능
	5	▶ ‘영원히, 간절히’라는 표현이 극단적임
	2	▶ ‘우리가족에게는’으로 시작하여 다른 문항들과 차이가 있어 보임. ‘나는~’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선별 필요해 보임 ▶ 가족에게는 → 가족간에 ▶ 친밀감이 없다 → 친하지 않다
	3	▶ 한순간도 → 삭제 (3명)
학교 또는 시설적응	6	▶ 땡땡아 → 비속어 여부, 초등학생 이해 여부 확인(2명)
위기문제	1	▶ 5정도에 ‘보통’ 또는 ‘약간’ 정도의 인내를 한번 정도 더 넣어주면 응답하기 좋겠음 ▶ ‘위기’ 용어를 기술하거나 예를 들 필요 있음 ▶ 청소년이 위기정도를 체크할 수 있을지, 체크한다고 해도 신뢰로운지 고민이 필요함

표 13. 문항 및 기타 의견

구분		의견 내용
요인 분류에 대한 의견	현재 분류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내적심리: '부적'이라는 표현과 '부정적'이라는 표현 차이가 있으므로 요인 설명으로 '부적'은 적절하지 않음. ▶가정적응: 사회부적응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 ▶교사/보호자 관계: 현재 내용은 모두 교사와의 관계이므로 '교사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학교 또는 시설적응: 학교 문항만으로 구성됨. 또한 학교박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항임 ▶부정적대인관계, 사회적 부적응: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인은 개념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이 필요함. ▶가정적응에서 형제관계에 대한 질문하나 정도 추가
	요인 재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인과 요인을 중첩시켜 새로운 요인을 만들 수 있을 듯함 (부모+가정적응 → 가족 변인, 학교+학교적응 → 학교 변인) ▶개인내적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가정 및 학교 부적응으로 요인 분류 가능 ▶심리상태, 대인관계, 사회적응으로 분류
	추가 요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했을 때, 개인, 가정, 학교, 또래에 대한 요인이 포함되었으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인이 포함되지 못함.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예: 상담복지센터)을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위기요인이 될 수 있음. ▶학습, 진로 등 개인적 목표설정 및 실천, 성취여부에 대한 문항 추가요망 ▶인식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 구분 필요성 고려 ▶서비스 이용전후로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 등이 긍정적인 변화 포함 고려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도 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시 (정서, 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진로상담, 학습상담에는 척도가 잘 맞지 않음 ▶CYS-Net 서비스가 심리, 대인관계, 가정, 학교부적응, 위기문제 개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측정도구인 것으로 사료됨
문항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내용이 모두 부정적임. 이럴 경우 response set이 높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방지 및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중간에 긍정문항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학교 적응의 경우 대부분의 척도에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의 문항은 위 요인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의 하위요인(교사관계) 와도 중복 ▶청소년이 문항에 따라 현재의 심정 및 과거의 회상 부분,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점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문항 내용을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대상대의 연령대가 넓음)

구분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에 좀 더 많은 문항 필요 ▶ 우울 요인에서 과수면, 음식섭취 관련 문항 필요 ▶ 부와 모를 분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측정이 될 것임 ▶ 또래 7,8 /총동성 3,4는 짝문항 형태로 보이는 유사문항으로 분리, 배치하면 좋겠음 ▶ 작성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음. 객관적인 상황 체크하는 문항 필요 ▶ 요인분류에 따른 내용에 있어 포괄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예: 불안 7번)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나는’이라는 주어를 넣은 문장과 넣지 않은 문장을 비교하여 본 후 통일 ▶ 전체적으로 ‘부정형’의 질문이 많은데,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적절히 배분하면 좋겠음 ▶ 문항 내용이 부정적인 면에서 작성되어 접수 및 초기상담에서 CYS-Net 사전 평가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이미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 있음. 긍정적인 문항 내용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고려 바람 ▶ 학교적응의 경우, ‘학교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함. 학교적응 요소에는 학업, 대인관계, 규칙 등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문항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해보임 ▶ 학교 또는 시설적응: 학교적응에 대한 문항이며 시설적응에 대한 문항이 없음. 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 적용이 안됨. 시설일 경우 해당내용으로 수정 또는 괄호 안에 추가 필요

각각의 문항 검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연구진의 회의를 실시하였고, 회의를 통해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평균과 전체 평균이 4점 이하인 2개 문항에 대해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문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문항 형식을 통일하고, 가독성을 위하여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에, 문항 수정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문항 수정 결과

요인	하위 요인	번호	수정 전 문항	문항 수정 결과
부적내적심리	우울	1	늘 마음이 슬퍼진다.	나는 자주 마음이 슬퍼진다.
		2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나는 자주 울고 싶어진다.
		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4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5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6	모든 것이 귀찮다.	나는 모든 것이 귀찮다.
		7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9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요인	하위 요인	번호	수정 전 문항	문항 수정 결과
	불안	10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1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나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3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4	이유 없이 불안하다.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하다.
		5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6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7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8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9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충동 성 및 공격 성	1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나는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3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4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6	말다툼을 많이 한다.	나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7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화를 잘 낸다.
		8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9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0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부 정 적 대 인 관 계	또래 관계	1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2	나는 친구가 없는 편이다.	나는 친구가 없는 편이다.
		3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5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6	나의 친구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나의 친구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7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8	나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나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부모 관계	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2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4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요인	하위 요인	번호	수정 전 문항	문항 수정 결과
	교사 관계	5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2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3	나는 학교선생님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문항 삭제)
		4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5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사 회 부 적 응	가정 적응	1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2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우리 가족 간에 친밀감이 없다.
		3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4	이따금 집을 몹시 떠나고 싶다.	나는 종종 집을 몹시 떠나고 싶다.
		5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집을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 적응	1	나는 학교가 싫다.	나는 학교가 싫다.
		2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3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4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5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6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친다.	(문항 삭제)
	위기문제		1	지금 내가 처한 위기 정도는?

라. 요인분석

1) 연구대상

척도의 요인구성의 적절성을 판별하고, 문항 추출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토대로 재구성된 '2017년판 CYS-Net 효과성 척도'는 총 57문항이었고, 이를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308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93부의 설문지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 15. 요인분석 연구대상 인구학적 정보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44	49.3
	여	148	50.7
	결측치	1	-
재학학교	초등학교	31	10.6
	중학교	113	38.7
	고등학교	111	38.0
	기타(학업중단 등)	37	12.7
	결측치	1	-
지역	서울	29	9.9
	부산	23	7.8
	광주	43	14.7
	대전	35	11.9
	울산	35	11.9
	경기	24	8.2
	강원	27	9.2
	충북	19	6.5
	전남	26	8.9
	경북	32	10.9

2) 조사기간

예비조사 실시를 위하여 전국의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였고, 설문조사 실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하는 청소년 44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4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3) 문항 추출

회수된 총 308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93부의 설문지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모형적합성이 인정되는 문항을 추출하였다. 설문문항 중 결측치(missing data) 처리는 SPSS에서 평균대체법으로 처리하였다.

마. CYS-Net 효과성 검증

1) 연구대상

최종 선정된 '2017년판 CYS-Net 효과성 척도'를 통하여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5명,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5회기 이상 개입이 이루어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2) 조사기간

CYS-Net 효과성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였고, 설문조사 실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기간은 8월 16일부터 12월 9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3) CYS-Net 서비스 효과성 분석

총 348 명의 사례 중, 기간 내에 사전-사후 설문이 모두 입력된 총 278명의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CYS-Net 서비스 전후의 변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모두 입력된 사례를 대상으로 요인별로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학급, 위기수준에 따라 사전-사후 서비스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전문가 평정에 의해 구성된 예비문항을 전국 11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0명의 CYS-Net 수혜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98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CYS-Net 수혜청소년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가지의 심리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각 구성 척도는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의 심리척도와 '위기문제'에 대한 단일 문항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문가 평정을 통해 검토 및 선정되었다. 단일 척도인 '위기문제'를 제외하고 새롭게 구성된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의 심리척도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를 판별하는 지수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한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간명적합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였다. RMSEA는 .05이하이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그리고 .08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Byrne, 2008). AIC는 지수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배병렬, 2011). 표집수에 민감하게 영향(Byrne, 2008; 배병렬, 2011; 송태민, 김계수 2012)을 받는 χ^2 의 경우,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 적합도를 가지고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설현수, 2003)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χ^2 은 유의수준에 의한 기각보다는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전 예비문항에 대한 영역별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16과 같다.

표 16. 문항 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개인내적심리 위기	우울	10문항	.930
	불안	9문항	.908
	충동성 및 공격성	10문항	.912
부정적대인관계	또래관계	8문항	.920
	부모관계	5문항	.901
	교사관계	4문항	.876
사회부적응	가정적응	5문항	.905
	학교적응	5문항	.840
총 문항수		56문항	.971

집중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면 판별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별타당성 검증은 표 17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표 17.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

방법	내용
AVE > 상관계수의 제곱값 또는 AVE의 제곱근 값 > 상관계수	두 구성개념간 각각의 AVE 값과 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상관계수 $\pm 2 \times S.E$ 가 1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두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에 2를 더한 후 그리고 뺀 후 각각 표준오차를 곱했을 때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1을 포함하면 판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또한, 구조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집중타당성, 판별 타당성, 법칙 타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우종필, 2012).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계수의 값이 .50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0이상, 개념신뢰도(C.R)가 .70이상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우종필, 2012). AVE는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의 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우종필, 2012).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적재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우종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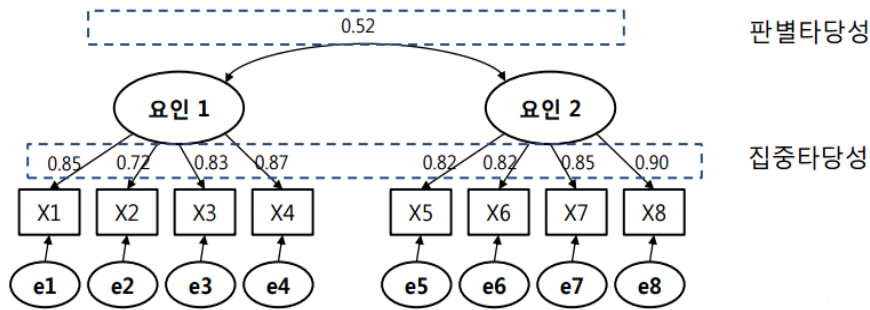


그림 6. 타당성 구분

가. ‘개인내적심리위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요인인 ‘개인내적심리위기’의 하위 측정요인과 문항간의 구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chi^2=41.300$, $df=24$, $p<.05$,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93, GFI는 .870, 증분적합지수 CFI는 .908, TLI 890. 간명적합지수 AIC는 424.459으로 제안모형이 비교적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yrne(2008)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요인의 총 16문항 중 수정지수를 토대로 다른 하위 측정요인에 교차부하(cross-loading)된 문항 및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가 10이상이면서, 공분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오차항에 연계된 문항인 7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1.300$, $df=24$, $p<.001$,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50, GFI는 .971, 증분적합지수 CFI는 .987, NFI는 .969 간명적합지수 AIC는 83.300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이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18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 문항의 표준화 계수 값은 .50을 넘어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일부 요인의 AVE 및 개념신뢰도 값이 기준 치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우울 →	우울5	.912	.062	14.796	.752	.476	.731
	우울8	.971	.052	18.564	.901		
	우울9	1.000	0	0	.858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불안 →	불안4	1,299	.120	10,784	.851	.276	.530
	불안6	1,158	.116	9,956	.752		
	불안9	1,000	0	0	.641		
충동성 및 공격성 →	충동7	1,507	.137	11,016	.802	.361	.624
	충동8	1,741	.158	10,993	.913		
	충동10	1,000	0	0	.636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19와 같다.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의 값들이 작아야 하는데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우울’ 및 ‘불안’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AVE보다 작아서 첫 번째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19.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구분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AVE
우울	1			.476
불안	.76	1		.276
충동성 및 공격성	.39	.41	1	.361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의 결과는 표.20과 같다. 모든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 상호 간 (상관계수+2)×S.E.와 (상관계수-2)×S.E.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요인의 경우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 20.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구분	상관계수	S.E	(r+2)S.E	(r-2)S.E
우울 ↔ 불안	.761	.165	0,46	-0,20
불안 ↔ 충동성 및 공격성	.407	.099	0,24	-0,16
충동성 및 공격성 ↔ 우울	.392	.107	0,26	-0,17

‘개인내적심리위기’의 하위 측정요인들간 상호상관은 .39~.76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측정요인들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우울’요인과 ‘불안’요인간의 관계는 .76와 ‘불안’요인과 ‘충동성 및 공격성’요인간의 관계 .41, ‘우울’요인과 ‘충동성 및 공격성’요인간의 관계 .39로 나타났다.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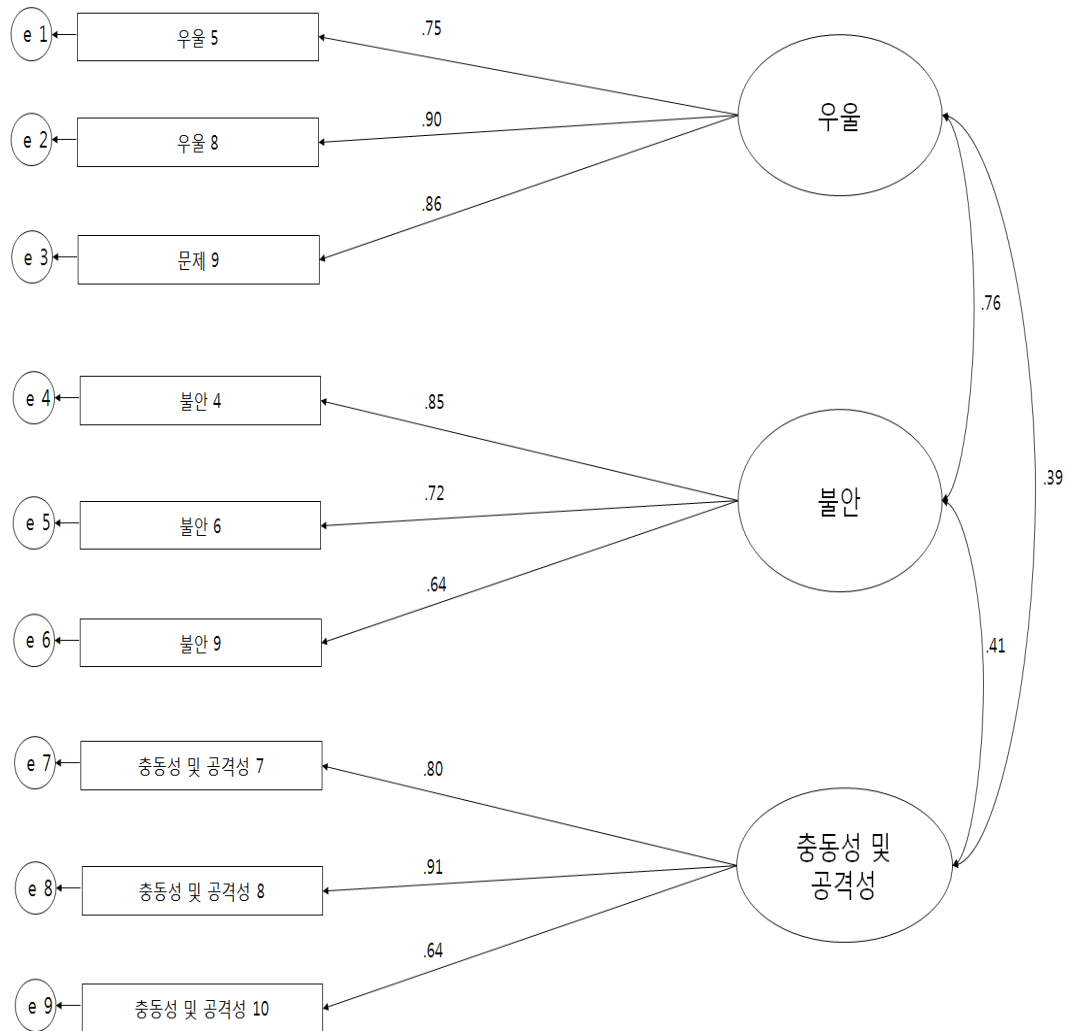


그림 7.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으로 선정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21과 같다.

표 21. ‘개인내적심리위기’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개인내적심리 위기	우울	3문항	.872
	불안	3문항	.783
	충동성 및 공격성	3문항	.823
총 문항수		9문항	.855

나. ‘부정적대인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요인인 ‘부정적대인관계’의 하위 측정요인과 문항간의 구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chi^2=664.644$, $df=116$, $p<.001$,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127, GFI는 .777, 중분적합지수 CFI는 .849, TLI 823. 간명적합지수 AIC는 738.644으로 제안모형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yrne(2008)가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요인의 총 17문항 중 수정지수를 토대로 다른 하위 측정요인에 교차부하(cross-loading)된 문항 및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가 10이상이면서, 공분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오차항에 연계된 문항인 8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34.317$, $df=24$, $p>.05$,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38, GFI는 .975, 중분적합지수 CFI는 .993, TLI는 .989 간명적합지수 AIC는 76.317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이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2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 문항의 표준화 계수 값은 .50을 넘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요인의 AVE 및 개념신뢰도 값이 기준 치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또래관계 →	또래1	1.000	0	0	.826	.436	.698
	또래3	.953	.059	16.198	.893		
	또래4	.946	.065	14.474	.775		
교사관계 →	교사2	1.036	.077	13.532	.832	.444	.705
	교사3	1.095	.080	13.769	.863		
	교사4	1.000	0	0	.749		
부모관계 →	부모1	1.000	0	0	.856	.439	.701
	부모3	.940	.059	15.867	.848		
	부모5	.94	.066	14.296	.763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23과 같다.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의 값들이 작아야 하는데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요인들의 상관계수 제곱의 값이 AVE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23.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구분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AVE
또래관계	1			.436
교사관계	.41	1		.444
부모관계	.46	.52	1	.439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의 결과는 표 24와 같다. 모든 '부정적대인관계' 요인 상호 간 (상관계수+2)×S.E.와 (상관계수-2)×S.E.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구분	상관계수	S.E	(r+2)S.E	(r-2)S.E
또래관계 ↔ 교사관계	.409	.135	.33	-.21
교사관계 ↔ 부모관계	.523	.138	.35	-.20
부모관계 ↔ 또래관계	.460	.153	.37	-.24

'부정적대인관계'의 하위 측정요인들간 상호상관은 .41~.52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측정요인들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요인과 '교사관계'요인간의 관계는 .41와 '교사관계'요인과 '부모관계'간의 관계 .52, '또래관계'요인과 '부모관계'요인간의 관계 .46로 나타났다.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으로 선정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25와 같다.

표 25 '부정적대인관계'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부정적대인관계	또래관계	3문항	.870
	부모관계	3문항	.854
	교사관계	3문항	.861
총 문항수		9문항	.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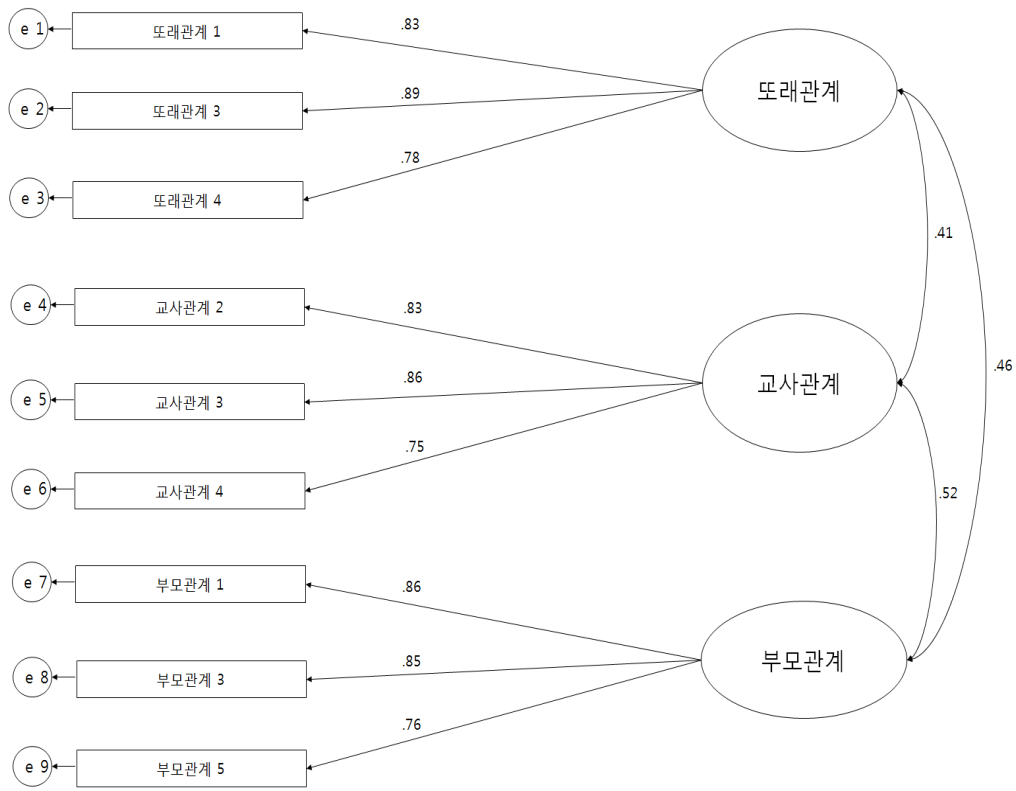


그림 8.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다. '사회부적응'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요인인 '사회부적응'의 하위 측정요인과 문항간의 구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chi^2=259.594$, $df=34$, $p<.001$,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151, GFI는 .846, 증분적합지수 CFI는 .874, TLI 833. 간명적합지수 AIC는 301.594으로 제안모형이 비교적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yrne(2008)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적응', '학교적응'의 요인의 총 10문항 중 수정지수를 토대로 다른 하위 측정요인에 교차부하(cross-loading)된 문항 및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가 10이상이면서, 공분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오차항에 연계된 문항인 4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397$, $df=8$, $p>.005$,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13, GFI는 .971, 증분적합지수 CFI는 .999, TLI는 .999 간명적합지수 AIC는 34.397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이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26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 문항의 표준화 계수 값은 .50을 넘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요인의 AVE 및 개념신뢰도 값이 기준 치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집중타당성)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가정적응 →	가정1	1,000	0	0	.899	.379	.641
	가정2	.966	.059	16,321	.883		
	가정5	.797	.071	11,150	.612		
학교적응 →	학교3	.928	.077	11,980	.846	.290	.549
	학교4	.911	.083	11,025	.706		
	학교5	1,000	0	0	.750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27과 같다.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의 값들이 작아야 하는데 첫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요인들의 상관계수 제곱의 값이 AVE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27. ‘사회부적응’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1

구분	가정적응	학교적응	AVE
가정적응	1		.379
학교적응	.53	1	.290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의 결과는 표 28과 같다. 모든 ‘사회부적응’ 요인 상호간 (상관계수+2)×S.E.와 (상관계수-2)×S.E.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부정적대인관계’ 요인의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2

구분	상관계수	S.E	(r+2)S.E	(r-2)S.E
가정적응 ↔ 학교적응	.533	.175	.44	-.26

‘사회부적응’의 하위 측정요인들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정적응’요인과 ‘학교적응’요인간의 관계는 .53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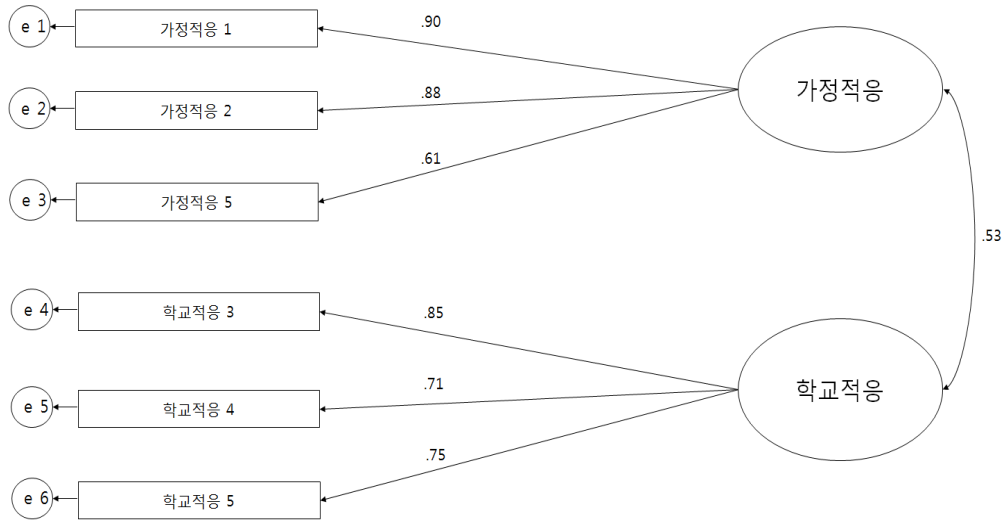


그림 9. ‘사회부적응’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부적응’ 요인으로 선정된 문항과 신뢰도는 표 29와 같다.

표 29. ‘사회부적응’ 요인 최종 문항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사회부적응	가정적응	3문항	.824
	학교적응	3문항	.807
총 문항수		6문항	.822

라. 최종문항 선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최종선정 문항

번호	요인	하위요인	최종문항
1	부적내적심리	우울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4		불안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하다.
5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6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7		충동성 및 공격성	나는 화를 잘 낸다.
8			나는 화가 나면 침지를 못한다.
9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10	부정적 대인관계	또래관계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11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12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13		부모관계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14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5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16		교사관계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17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18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19	사회부적응	가정적응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20			우리 가족 간에 친밀감이 없다.
21			나는 집을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2		학교적응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23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24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25	전반적어려움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의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내적심리는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각 3문항씩 총 9문항이고, 부정적대인관계는 또래관계, 부모관계, 교사관계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부적응은 가정적응, 학교적응 각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 CYS-Net 효과성 조사 결과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CYS-Ne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 서비스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직접 이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5명,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5회기 이상 개입이 이루어진 청소년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효과성 조사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각 센터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년 8월 16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로, 센터에서 담당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고 CYS-Net 종합정보망에 응답 결과를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CYS-Net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사례는 총 348명이었고, 그 중 기간 내에 사전-사후 설문이 모두 입력된 27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을 살펴보면, 남 147명(52.9%), 여 131명(47.1%)이고, 학급별로는 중학교(37.8%)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32.4%), 초등학교(19.1%), 학업중단(6.8%), 대학교(4.0%)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저위기(62.6%)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위기(23.4%), 중위기(14.0%)순이었다.

표 31. 연구대상 인구학적 정보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47	52.9
	여	131	47.1
학급	초등학교	53	19.1
	중학교	105	37.8
	고등학교	90	32.4
	대학교	11	4.0
	학업중단	19	6.8
지역	서울	24	8.6
	부산	22	7.9
	대구	4	1.4
	대전	7	2.5
	인천	7	2.5

변인	구분	빈도	비율(%)
	광주	14	5.0
	울산	7	2.5
	경기	44	15.8
	강원	16	5.8
	충북	13	4.7
	충남	19	6.8
	전북	16	5.8
	전남	27	9.7
	경북	28	10.1
	경남	22	7.9
	제주	7	2.5
	세종	1	0.4
	위기수준	저위기	174
중위기		39	14.0
고위기		65	23.4
개입회기	10회기 미만	74	26.6
	10회기 이상 ~ 20회기 미만	116	41.7
	20회기 이상 ~ 30회기 미만	43	15.5
	30회기 이상	45	16.2
	합 계	278	100.0

가.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개인내적심리위기에 미치는 영향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개인내적심리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이용 전과 이용 후의 개인내적심리위기 변화 정도를 사전-사후 설문 종료 후,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내적심리위기 수준 평균이 3.44에서 2.47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6.09$, $p<.001$). 결과에 따르면 CYS-Net 서비스는 청소년 내담자의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을 낮추어주어 개인내적심리 위기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개인내적심리위기 변화

분류		평균	표준편차	<i>t</i>	
개인내적심리위기	우울	사전	3.18	1.52	13.88***
		사후	2.18	1.11	
	불안	사전	3.60	1.60	13.32***
		사후	2.54	1.27	
	충동성 및 공격성	사전	3.55	1.61	11.60***
		사후	2.69	1.37	
	전체	사전	3.44	1.29	16.09***
		사후	2.47	1.05	

*** $p < .001$

나.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부정적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부정적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이용 전과 이용 후의 부정적대인관계 변화를 사전-사후 설문 종료 후,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정적대인관계 평균이 2.94에서 2.26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2.33, p < .001$). 결과에 따르면 CYS-Net 서비스는 청소년내담자의 또래관계, 부모관계,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낮추어주어 부정적대인관계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부정적대인관계 변화

분류		평균	표준편차	<i>t</i>	
부정적대인관계	또래관계	사전	3.29	1.68	11.99***
		사후	2.50	1.35	
	부모관계	사전	2.85	1.69	10.08***
		사후	2.14	1.24	
	교사관계	사전	2.67	1.56	7.86***
		사후	2.14	1.23	
	전체	사전	2.94	1.32	12.33***
		사후	2.26	1.01	

*** $p < .001$

다.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전후의 사회부적응 변화를 사전-사후 설문 종료 후,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부적응 수준 평균이 3.10에서 2.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12.13$ $p<.001$).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적응은 2.92에서 2.19점으로 낮아졌고($t=9.68$ $p<.001$), 학교적응은 3.29에서 2.41로 낮아졌으며($t=11.44$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34. 사회부적응 변화

분류		평균	표준편차	t
사회부적응	가정적응	사전	2.92	9.68***
		사후	2.19	
	학교적응	사전	3.29	11.44***
		사후	2.41	
	전체	사전	3.10	12.13***
		사후	2.30	

*** $p<.001$

라.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전반적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CYS-Net 서비스가 청소년의 전반적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CYS-Net 서비스 이용 전과 이용 후의 전반적어려움 변화 정도를 사전-사후 설문 종료 후,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어려움 수준이 평균 5.73에서 3.92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4.70$, $p<.001$). 결과에 따르면 CYS-Net 서비스는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전반적어려움 수준을 낮추어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전반적어려움 변화

분류	평균	표준편차	t
전반적어려움	사전	5.73	14.70***
	사후	3.92	

*** $p<.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CYS-Net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효과성 척도를 개정하고자 실시되었다. 2005년에 CYS-Net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CYS-Net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되었다. 양적 확대와 동시에 공공서비스로의 CYS-Net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사업이 진행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CYS-Net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운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CYS-Net 서비스 효과성 평가는 2007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국 222개 센터가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 척도는 청소년 위기문제를 우울,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등 세부적인 요인만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또한 청소년 개인이 가진 고유 위기문제 해소 여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CYS-Net 효과성 측정 도구를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CYS-Net 종합정보망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호소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척도 개정에 대한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된 요구와 기존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1차 문항 구성을 하였다. 총 59문항으로 구성된 1차 문항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타당성이 적다고 평가된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일부분항을 수정하여 2차 문항을 구성하였다. 2차로 구성된 문항은 총 57문항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요청하였고, 그 중 수거된 308부 중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3부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1로 나타났으며, 구조적타당성 검증 위하여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 문항을 구성하였고, 청소년의 주관적 위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어려움과 관련된 단일문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25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CYS-Net 효과성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청소년으로 5회기 이상 개입사례로 한정되었고, CYS-Net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348명으로 그 중 사전-사후 모두 입력된 27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CYS-Net 서비스 이용 전후로 청소년의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요인과 전반적어려움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CYS-Net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된 CYS-Net 효과성 척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 청소년 및 청소년 동반자 수혜 청소년을 대상으로 CYS-Net 서비스 전과 후의 개인내적심리위기, 부정적대인관계, 사회부적응 영역에서 점수 비교를 통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척도는 사전과 사후로 측정되는 척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신규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상반기에는 CYS-Net 종합정보망에 기존 및 신규척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되 신규척도 탑재 후에는 신규척도로 의무화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 개정된 CYS-Net 효과성 척도는 CYS-Net 사업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서비스 향상의 제고를 도모하여 CYS-Net 사업의 공고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에 개발된 CYS-Net 효과성 평가 척도를 새롭게 대두된 청소년 위기영역을 포함한 현행화된 척도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새로 추가된 위기영역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제시함으로써 CYS-Net 사업의 효과성을 설명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특히, 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모자녀관계,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와 같은 5가지 단일요인에서 복합요인과 요인의 위계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인의 심리상태 호전, 대인관계 개선 등 CYS-Net 서비스 효과를 통한 정성적으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YS-Net 서비스를 통해 위기수준의 변화를 전문가가 평정하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사용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보고용 위기청소년평가척도를 종합정보망에 탑재하여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한동우. (2005). 위기 (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권현용 (2010) 심리사회적 요인의 질적분석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평가척도 개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경미(2010). 경남지역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황매향, 이상민, 최한나, 김봉환. (2011). 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동일, 최수미(2008).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청소년의 심리내적 및환경적 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 김동일, 김은양, 이주영, 김태성(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성과 시스템 연구. 연구보고 2010-68. 여성가족부
- 김동일, 양미진, 정여주, 김태성, 허은, 방나미(200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효과성 연구
- 노성덕, 김태성, 채중민(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제3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일태. (1992).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중술,한경희,임지영,민병배,이정흠,문경주(2005)MMPI-A(다면적인성검사-청소년용) 매뉴얼, (주)마음사랑
- 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20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두현(2006).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6 CYS-Net 정책심포지엄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현재와 미래 - 네트워킹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박수정, 김인규, 김태성, 이준우(2013). 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평가 지표개발. 연구보고 2013-48. 여성가족부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유진, 홍상환(2009) 아동우울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6(3)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10),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 서울: (주) 휴노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보고서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 개념 및 자기 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설현수(200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검증의 문제점 및 대안탐색. 교육평가연구, 16(1), 105-123.
- 송태민, 김계수(2012). 보건복지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은경, 손재환(2016) 20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 이윤경(2015), 아동의 분노정서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2014). 상담의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이창호, 김동일, 노성덕, 최수미, 김상수(2007) CYS-Net 효과성 평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춘화(2009). 중소도시형 안산시 CYS-Net 이용만족도와 운영모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영(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적 개입 마련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창(200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이영호 (2014),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7). 2007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8). 2008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9). 2009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 2010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1). 2011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2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 2013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2014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 2015년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17권1호 (1996), pp.173-188
-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1(3), No.3,769-782
- 허은(2010). CYS-Net 서비스 효과성 관련 개인변인 및 기관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2015) 청소년위기실태조사-1차년도(문항개발), 2015 청소년상담연구 185
- 황순길, 김동일, 주영아, 이호준, 신현수, 최수미, 손재환, 김상수, 김소연(200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자 특성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전연진, 이상균, 김태성, 허미경, 김남희, 김보람(2013).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모형 개발 - CYS-Net 중추기관 역할 중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eck, A. T., Emery, G., & Greebberg, R. L. (1985), *Anxious disorders and Phobias :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Butcher, J.N., Williams, C.L (199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Adolescen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Essentials of MMPI-2 and MMPI-A interpretation Minneapolis)
- Byrne, B. M. (2008). Testing for multigroup equivalence of a measuring instrument: A walk through the process. *Psicothema*, 20(4), 872-882.
- Erk, R. R. (2008). *Counseling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SM-IV-TR Disorders, 2nd*. Prentice Hall.
- Heppner, P. P., Wampold, B. E., & Kivlighan, D. M. (2007). *Counselling research*. New Delhi: Brooks/Cole.
-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NMYR Publishing Company

- Patton, J. H., Stanford, M.S., & Barratt, E. S.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 768-774
- Stallard, P. (1996). Consumer satisfaction with mental health treatment. *Journal of Mental health*, 5(4), 333-348.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3) Understanding the role of impulsivity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alcohol abuse: Application of the UPPS Impulsive Behavior Scal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1, 210-217.

부 록

1. 사전 요구조사 설문지
2. 1차 문항구성 및 출처
3. 전문가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외부전문가)
4.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청소년 예비조사)
5.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사전-사후검사)

부록 1. 사전 요구조사 설문지

2016년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사전 요구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관리부에서는 CYS-Net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요구조사는 척도 구성에 앞서, 현장에서 CYS-Net 효과성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척도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CYS-Net 효과성 척도 문항에서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언바랍니다.

하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정 의견
우울	1.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늘 마음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불안	4.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공격성 및 충동성	7.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9.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정적 부모 자녀 관계	10.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	13.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친다.	①	②	③	④	⑤	

2. CYS-Net 효과성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요인 외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현재 '우울', '불안', '공격성 및 충동성',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 총 5개 요인으로 구성)

☞ 없을 경우, 3번 작성 부탁드립니다.

2-1)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 2-1에서 제시한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3. CYS-Net 효과성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척도는 몇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7 문항)

3-2) CYS-Net 효과성 측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명	
성명	

※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1차 문항구성 및 출처

요인	하위 요인	번호	문 항	비고
부적 내적 심리	우울	1	늘 마음이 슬퍼진다.	기존척도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기존척도
		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17번
		4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19번
		5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29번(정신건강)
		6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아동우울척도 예비 34번(인지와 정서)
		7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아동우울척도 예비 7번(인지와 정서)
		8	모든 것이 귀찮다.	아동우울척도 예비 5번(의욕 및 신체활력)
		9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청소년행동평가척도(YSR) 33번
		10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청소년행동평가척도(YSR) 35번
	불안	1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기존척도
		2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기존척도
		3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24번
		4	이유 없이 불안하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21번
		5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25번
		6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청소년행동평가척도(YSR) 31번
		7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청소년행동평가척도(YSR) 45번
		8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BAI 9번
		9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BAI 7번
	충동성 및 공격성	1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기존척도
		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기존척도
		3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28번(위험요인-개인-공격성)
		4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1번(충동성)
		5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16번(충동성)
		6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31번(충동성)
		7	나는 화를 잘 낸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36번(충동성)
		8	말다툼을 많이 한다.	청소년행동평가척도(YSR) 3번
		9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UPPS충동성 9번(지속성 부족)
		10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Barratt충동성 17번(운동충동성)
	부정 적 대인	또래 관계	1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2			나의 친구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102번(따돌림)

요인	하위 요인	번호	문 항	비고
관계		3	나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112번(따돌림)
		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아동우울척도 예비 16번(교우관계)
		5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아동우울척도 예비 23번(교우관계)
		6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9번
		7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6번
		8	나는 친구가 없는 편이다.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3번
	부모 관계	1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기존척도
		2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기존척도
		3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41번 (위험요인-가정-부모와의갈등관계)
		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43번 (위험요인-가정-부모와의갈등관계)
		5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MMPI-A 438번 (보충척도 A-fam)
	교사 관계	1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위기실태조사 최종 49번 (위험요인-학교-학교생활부적응)
		2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위기평가척도 예비 110번 (교사와의 갈등)
		3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MMPI-A 12번 (보충척도 A-sch)
		4	나는 학교선생님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MMPI-A 425번 (보충척도 A-sch)
5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사회적지지지각척도 19번	
사회 부적 응	가정 적응	1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가족관계척도 6번
		2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가족관계척도 10번
		3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가족관계척도 25번
		4	이따금 집을 몹시 떠나고 싶다.	MMPI-A 19번 (보충척도 A-fam)
		5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MMPI-A 344번 (보충척도 A-fam)
	학교 적응	1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기존척도
		2	나는 학교가 싫다.	기존척도
		3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친다.	기존척도
		4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MMPI-A 33번 (보충척도 A-sch)
		5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MMPI-A 69번 (보충척도 A-sch)
		6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MMPI-A 364번 (보충척도 A-sch)
		1	지금 내가 처한 위기 정도는?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부록 3. 전문가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외부전문가)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 설문문항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YS-Net 효과성 척도 개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견조사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이전에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문항이 요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문항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전반적인 문항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견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 : 노성덕, 정재우, 김동일, 김태성, 이미현

문 의 : 이미현(051-662-3124)

※ 다음은 귀하에 관한 개인적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최종 학력사항

① 대졸

② 석사 재학 및 수료

③ 석사

④ 박사 재학 및 수료

⑤ 박사

4. 최종학력 전공

- ① 상담전공
- ② 임상심리전공
- ③ (① 외)사회복지학전공
- ④ (① 외)교육학전공
- ⑤ (①, ②외)심리학전공
- ⑥ (① 외) 청소년학전공
- ⑦ 기타 ()

5. 보유 자격증 (중복체크 가능)

- ① 청소년상담사 1급
- ②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청소년상담사 3급
- ④ 사회복지사
- ⑤ 청소년지도사
- ⑥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 ⑦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 ⑧ 임상심리사
- ⑨ 없음
- ⑩ 기타 ()

6. 상담 경력 () 년

※ 다음은 청소년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타당도를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하위 요인	번호	문 항	전혀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부 적 내 적 심 리	우울	1	늘 마음이 슬퍼진다.	1	2	3	4	5
		2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1	2	3	4	5
		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5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6	모든 것이 귀찮다.	1	2	3	4	5
		7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	2	3	4	5
		9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	2	3	4	5
		10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1	2	3	4	5
	불안	1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5
		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1	2	3	4	5
		3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	2	3	4	5
		4	이유 없이 불안하다.	1	2	3	4	5
		5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1	2	3	4	5
		8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9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1	2	3	4	5
	충동성 및 공격성	1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1	2	3	4	5
		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1	2	3	4	5
		3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1	2	3	4	5
		4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6	말다툼을 많이 한다.	1	2	3	4	5
		7	나는 화를 잘 낸다.	1	2	3	4	5
		8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1	2	3	4	5
		9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1	2	3	4	5

요인	하위 요인	번호	문 항	전혀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부 정 적 대 인 관 계	또래 관계	1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1	2	3	4	5
		2	나는 친구가 없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6	나의 친구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1	2	3	4	5
		7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	1	2	3	4	5
		8	나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1	2	3	4	5
	부모 관계	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4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1	2	3	4	5
		5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1	2	3	4	5
	교사/ 보호자 관계	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	2	3	4	5
		2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선생님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1	2	3	4	5	
5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1	2	3	4	5	
사 회 부 적 응	가정 적응	1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1	2	3	4	5
		3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1	2	3	4	5
		4	이따금 집을 몹시 떠나고 싶다.	1	2	3	4	5
		5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1	2	3	4	5
	학교 또는 시설 적응	1	나는 학교가 싫다.	1	2	3	4	5
		2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1	2	3	4	5
		3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4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1	2	3	4	5
		6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멍뭉이를 친다.	1	2	3	4	5
위기문제	1	<p>지금 내가 처한 위기 정도는?</p> <p>매우 낮다 매우 높다</p> <p>1 2 3 4 5 6 7 8 9 10</p>	1	2	3	4	5	

※ 'CYS-Net 효과성 척도' 문항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인분류에 대한 의견

2. 문항에 대한 의견

3. 기타 의견

부록 4.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청소년 예비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상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개별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문에 응하신 후, 소정의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관리부 드림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 표시를 해주세요.

1. 성별 : ① 남 () ② 여 ()

2. 출생년도 _____ 년 (예: 2001년)

3. 재학 중인 학교(또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 ()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 다음은 최근 1개월간 경험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나는 자주 마음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자주 울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모든 것이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요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5. 'CYS-Net 효과성 척도 연구' 설문조사(사전-사후검사)

※ 다음은 최근 1개월간 경험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						
		전혀 아니다	1	2	3	4	5	6
1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부모님(보호자)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선생님들이 내게 트집을 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우리 가족 간에 친밀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집을 떠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학교 가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4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p>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의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해주세요)</p> <p>전혀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어렵다</p>									

Abstract

The Study on Revising the Effectiveness Scale of CYS-Net Service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is a community-based system composed of various institutes and facilities in respective area, where different services are connected and delivered for youths at risk. CYS-Net is operated by 222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in 2016. The effectiveness of CYS-Net which is government policy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and the effectiveness scale of CYS-Net was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service provided by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in 2007. Since then, it has been used in nationwid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Meanwhile, there were demands for revising the effectiveness scale of CYS-Net.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se the sca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effectiveness scale of CYS-Net developed in 2007,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vised scale, and test the effectiveness of CYS-Net by pre and post test. To reflect the opinions of on-site experts on the revision, the need assessment was conducted. Also, the counseling data of CYS-Net system and the related literature were analyzed. Survey was implemented for nationwide youth for testing the effectivenes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vised scale.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briefed as follows;

At First, analysis of the counseling data of CYS-Net system was preceed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primary issues of youth were study and career. The next ones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se of computer/internet. Specifically, the peer relationship issue accounted for higher rat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use of computer/internet had increased for 2 years, since 2013.

Secondly, the first preliminary scale of effectiveness CYS-Net was prepared through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research, analyzing the counseling data of CYS-Net system and reflecting needs of hands-on workers. The first scale was composed of 59 question items and verific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by 29 experts to check the validity of it. As a result, the score for content validity of all items was 4.28(the total score is 5), and 2 items of the lowest score were deleted. The question items were amended by considering experts' opinion and readability.

Thirdly, the second preliminary scale of effectiveness CYS-Net was used for youths in

nationwid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The data of 293 youth were collected for assess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YS-Net Service effectiveness scale.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second preliminary scale was relatively high with Chronbach α ranging over .84. It turned out that rating scale was suitable and also coincide with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compose final question items, some items were excluded by considering Modification Index (M.I), and the result of test using the structural model showed that the measurement model fit of subscales was appropriate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YS-Net Service. The final scale of effectiveness CYS-Net was composed of total 8 factors and 25 question items. The factors are personal psychological crisis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and aggression, 3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peer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parents, relationship with teachers, 3 factors) and social adaptation(family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2 factors).

Fourth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CYS-Net service for youths who were subject to CYS-Net service in nationwid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by pre and post evaluation through paired t-test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briefed as follows;

At first, the effectiveness of CYS-Net service for youths at risk could be more systematically verified by using the revised scale of the effectiveness of CYS-Net service. Especially, the existing scale of effectiveness of CYS-Net service has just five subscales which are depression, anxiety, impulsive-aggressiveness, nega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 low-interest in school. However, the revised scale could make more specif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through multiple and hierarchical subscales. Through the revised scale, it could be identified that whether CYS-Net service is effective for the youth suffering from personal psychological cri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adaptation after providing the service.

Secondly,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empirical evidence that CYS-Net service of nationwid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is effective for youth at risk.